

# Liberal Education, 그 오래된 미래를 향하여

## -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단국대학교의 도전

윤 승 준\*

목 차	
I. 서 론	III.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D-LAC)의
II.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을 향한 단국대학교의 여정	교육목표와 교양교육과정
	IV. 결 론

### 국문초록

본고는 단국대학교가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해 온 과정을 돌아보고, 자유교양대학(D-LAC)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교육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하였으며, 그 시행에 있어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양교육대학을 자유교양대학(D-LAC)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교양·전공·선택(응비)의 3원 체제로 재편하면서 교양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학내 여건을 고려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Liberal Education을 위한 단국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중핵교양, 공통교양, 영역별교양으로 구성되는데, 중핵교양 교과목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에는 공통교양과 영역별교양으로만 구성하고, 2023학년도부터 중핵교양을 포함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신 2020학년도부터는 기존의 대학기초교양 영역에 개설되었던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을 전공교육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특정

\* 단국대 교수, yoonsj@dankook.ac.kr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이나 취창업 관련 교과목 등 보편지성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서는 부적합한 교과목들을 용비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교양교육과정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협력과 공조, 「세계 지성사의 이해」와 같은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영역별교양 이수학점의 확대, 기초학문 분야 전임교원의 확보 및 교육여건 확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제어] 교양교육,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육목표, 교육과정 개편, 중핵교양, 공통교양, 영역별교양

## I. 서 론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업 또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도구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 우리의 삶과 그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기보다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교차와 융합을 통한 ‘Big Question 교육’이 필요하고,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교양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점증하고 있다.<sup>2)</sup>

-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학 진학의 이유나 고등교육의 목적은 갈수록 경제적인 부의 획득에 맞춰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고등교육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을 버는 것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다고 하며,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나 ‘상야탑’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생애 수입, 즉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정의되고 인식된다는 지적이 있따르고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 강주현 옮김,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2015, 209쪽.; 박병철,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102~107쪽.
- 2) 교양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홍성기, 『개방형 플랫폼 시대의 교양교육』, 『두루내』 29호, 한국교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 방안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을 ‘기초교양교육의 변화’, ‘학부 커리큘럼의 변화’, ‘고등교육 수준별 교육방법 혁신’,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강화’, ‘커리어 개발 강화’ 등 5가지로 요약, 제시하였다.<sup>3)</sup>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기초교양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학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핵심능력 형성 및 융합 특화 교양과정의 운영’, ‘대학과 사회를 연계하는 교양교육과정’, ‘1학년 교육의 강화 및 우수성을 지향하는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주목하였다. 미국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 UCLA, 조지아 공과대학 등의 사례를 거울삼아 교양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문과 삶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미래 시민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1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교양교육의 토대를 바로세우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sup>4)</sup> 한국교양교육학회의 창립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발족, 정부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사업 시행은 교양교육의 토대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 교양 교과목 가운데에는 학술적 가치가 의심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전공기초 교과목이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위상이 낮고 소속 교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년

양기초교육원, 2017.;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조사」(RR-2017-10-656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김기봉, 「인공지능 시대 대학과 인문학, 어디로 갈 것인가」, 『2018-1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

- 3) 임철일·송해덕·김지현,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13~68쪽.
- 4) 윤승준·홍석민·홍성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약사, 문제점 그리고 재구성 노력」, 2019 국제 교양교육 포럼,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10.25.~26., 80~85쪽.

트랙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는 교양교육을 ‘재난 지역(disaster area)’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5)</sup> 때문에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그 터전을 공고히 하는 과제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하겠다.

교양교육의 새로운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자유교육’ 또는 ‘자유학예교육’이라고 하는 ‘Liberal Education’이다.<sup>6)</sup> Liberal Education은 광범위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지각과 이해의 지평 확대, 사고와 소통의 명료화, 비판적 분석, 도덕적·윤리적 감각의 연마를 지향한다.<sup>7)</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5) 윤우섭·홍석민·홍성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2019, 17~30쪽.

6) Liberal Education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3학(trivium) 4과(quadrivium)로 대표되는 Liberal Arts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Liberal Arts Education이라고도 한다. ‘Liberal Education’이 자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용어라고 한다면, ‘Liberal Arts Education’은 그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공통필수의 지식체계 또는 교과과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최병문 외,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RR-2017-8-654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47쪽.; 이창수·송백훈·전종구, 「자유교육의 개념에 대한 고찰-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주는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권 6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96쪽.; 조영하, 「21세기 대학의 자유교육, 그 정체성에 관한 고찰-미국고등교육사회의 관련 논쟁과 담론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5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 38~39쪽.

7) AAC&U(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에서는 Liberal Educa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iberal Education is an approach to learning that empowers individuals and prepares them to deal with complexity, diversity, and change. It provides students with broad knowledge of the wider world (e.g. science, culture, and society) as well as in-depth study in a specific area of interest. A liberal education helps students develop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strong and transferable intellectual and practical skills such as communication, analy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a demonstrated ability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real-world settings.”

특히 교양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Liberal Arts College를 설치하고 Liberal Education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sup>8)</sup> 대전대학교 H-LAC, 가천대학교 G-LAC, 대구대학교 S-LAC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과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Liberal Education을 지향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은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sup>9)</sup>

단국대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기존의 교양교육대학을 자유교양대학(D-LAC)으로 전환하고, Liberal Education을 시행한다.<sup>10)</sup> 이를 위하여 단국대학교는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Action Plan을 마련

<https://www.aacu.org/leap/what-is-a-liberal-education>.

8) Liberal Arts College는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기숙형 대학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Liberal Arts College : A particular type of institution—often small, often residential—that facilitates close interaction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and whose curriculum is grounded in the liberal arts disciplines.”

<https://www.aacu.org/leap/what-is-a-liberal-education>

9)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국제 교양교육 포럼은 Liberal Education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8 국제 교양교육 포럼 『변화의 시대, 교양교육의 재발견』, 롯데호텔 서울, 2018.11.21.~22.;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8년 한국교양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다시 기초로 : 동·서양 자유학예교육의 새로운 르네상스』, 계명대학교, 2018.11.23.~24.;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국제 교양교육 포럼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서강대학교 장하상관, 2019.10.25.~26.

10) 1947년에 개교한 단국대학교는 2019년 4월 1일 현재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23,07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012명이 재직하고 있는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이다. 단국대학교의 기존 교양교육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교과목을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승준 외, 「D-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2019, 12~15쪽.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을 교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본고는 단국대학교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하는 Liberal Education의 방향과 취지,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고,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 II.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을 향한 단국대학교의 여정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을 위한 단국대학교의 구상은 「단국대학교 미래교육 혁신안」(2016),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2017),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2018), 「2018 미래교육포럼」(2018), 「D-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2019)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경과를 요약하여 단국대학교의 Liberal Arts College 운영 계획 수립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1. LAC 논의의 단초 :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2016)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롯한 고등교육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였다.<sup>11)</sup> 재정 지원과 입학 정원 축소를 앞세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사회를 생존 경쟁의 정글 속으로 몰아넣었다.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던, 아니면 구조개혁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던, 각 대학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새롭

11)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2013.10.1.; 교육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1.28.

게 수립하고, 교육과정 정비와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섰으며, 학생 지원 조직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성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ACE 사업은 선정된 대학에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sup>12)</sup>

단국대학교는 ACE 사업에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학에서는 2015년 9월 대학의 교육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의 교육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교육기획단은 단국대학교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주요 교육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10년 간 교육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였다.<sup>13)</sup>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대학의 운영 방안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략도 제시하였다.

특히 교양교육대학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획단에서는 ‘LAC 운영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시행’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전공 융합과 창의적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고, 직업교육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사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학생 정원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도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버럴아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대학의 운영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은 조직 개선안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sup>14)</sup>

12)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1·2』, 학지사, 2015, 2016.; 임선애 외, 「학부교육 선도대학 교양교육 성과진단 연구」(RR-2016-23-642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13) 단국대학교 기획실, 「미래의 교육방향」(2015.2.11.). 그 결과로 제시된 인재상과 핵심역량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단국대학교 인재상과 학생핵심역량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 단국대학교 기획실, 「교양교육대학 운영 개선(안)」(2015.7.3.).



[그림 1] 교양교육대학의 조직 개선(안)과 범정리버럴아츠칼리지

교육기획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끝에 LAC로의 전환을 통해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LAC의 교육목표를 통합학문 교육을 통한 균형 잡힌 안목을 갖춘 인재 양성, Interdisciplinary Education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미래사회의 수요에 대비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에 두었다. 아울러 LAC 조직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하되, 죽전캠퍼스에는 미래융합학부와 교양학부, 천안캠퍼스에는 창의융합학부와 교양학부를 각각 두는 것으로 하였다. 교양학부에서는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미래융합학부와 창의융합학부에서는 각각 LHP(문학·역사·철학), LEP(법학·경제학·정치학), 빅데이터, 금융공학, 행태과학, 인공지능학, 실버학, 창의예술, 지역학 등의 전공 트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sup>15)</sup>

교육기획단에서 구상한 LAC 안은 고등교육 환경과 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교육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안은 Liberal Education의 범위를 인문학 중심으로 한정하고, 기존 학사조직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융합전공 내지 사회적으로 새롭게

15) 교육기획단,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 단국대학교 교육기획단, 2016, 13~19쪽.;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별첨자료)」, 2016, 60쪽.

부상하는 전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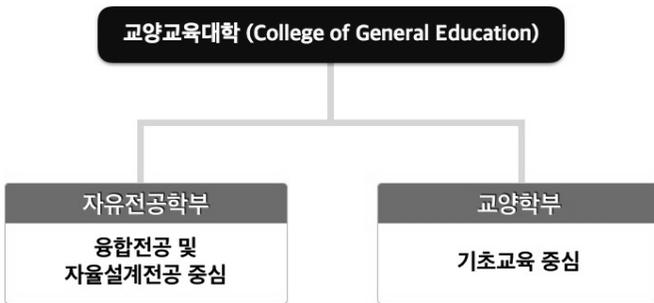
## 2. 학부대학(CLS) 자율전공학부 구상 :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2017)

단국대학교는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기관장을 교무처장이 겸직하는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다가 2016년 5월에 이르러 교양교육대학장을 별도로 보임하고 교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교양교육대학장이 별도로 보임되면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였다. 2017년 2월에 완성된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보고서가 그것이다.<sup>16)</sup> 여기에는 교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양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인성교육, 교육성과 평가 및 환류,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계획을 담았을 뿐 아니라, ‘자유전공대학 및 융합교육과정 운영(CLS 혹은 LAC)’에 대한 장을 별도로 두어 Liberal Arts College 전환을 위한 구상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학과 중심 학사제도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교육을 충실히 제공하는 학부대학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유연한 학사제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기초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 융복합적 사고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대학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학부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학업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실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의 자율설계전공이나 에세이 평가, 자유학기제 등을 도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16) 송재용 외,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7.

이 보고서는 학부대학의 교육목표를 교시인 진리·봉사를 토대로 학문의 참된 가치를 탐구하며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Personality, Party, Polymorphism, Permeability, Performance 등 5가지를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제시하였다. 학부대학의 조직 구성안에 대해서는 ① 교양교육대학을 자유전공학부(융합전공 및 자율설계전공 중심)와 교양학부(기초교육 중심)로 구성하는 안, ② 교양교육대학을 학부대학으로 변경하고 학부대학을 르네상스학부(융합전공 및 자율설계전공 중심)와 프라이어머스학부(기초교육 중심)로 구성하는 안, ③ 자유전공학부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융복합전공과 자율설계전공을 개설하는 안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2] 단국대학교 학부대학 조직 구성안(제1안)



[그림 3] 단국대학교 학부대학 조직 구성안(제2안)



[그림 4] 단국대학교 학부대학 조직 구성안(제3안)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에서 제시한 학부대학 운영안은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의 LAC 운영안에 비하여 훨씬 구체화 되고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의 융합전공 및 자율설계전공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학부대학의 교육목표로 제시한 5P (Personality, Party, Polymorphism, Permeability, Performance)를 과연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Liberal Education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데이터과학이나 인공지능학, 디지털 인문학 등 융합전공 또는 자율설계전공의 교육 방안에 집중함으로써 학부 대학 운영안을 자유전공학부(융합전공 또는 자율설계전공) 운영안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3. 학사구조 개편의 방향과 Liberal Education : 「2020 신학사구조개편 안」(2018)

2007년 8월 민족사학에서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탈 서울’을 선언하였던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이전 후 10년 간 추진해 온 캠퍼스 특성

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2020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신학사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였다.<sup>17)</sup>

단국대학교는 2016년 9월 「학사구조개편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 학사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학사구조개편 개선방안 연구용역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는 연구용역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특성화 연계, △캠퍼스 간 이동 최소화, △기초학문단위 정체성 유지, △학생 정체성 유지, △교원 신분권 보장 등 학사구조개편의 5대 원칙을 설정하고, ‘학내 기여도 평가’와 ‘대외 경쟁력 (Peer Group) 평가’ 및 ‘미래유망 학문단위 발굴’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방안」(초안)을 마련하였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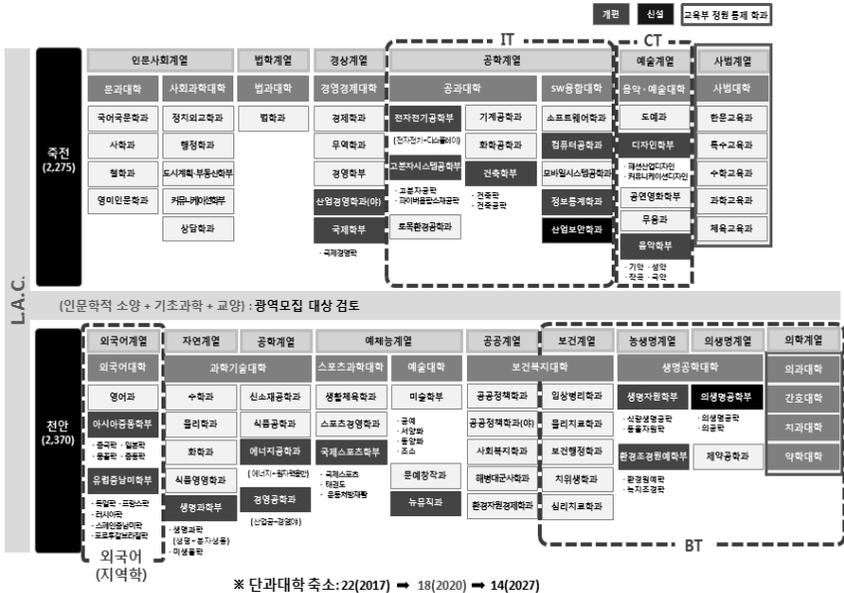
2017년 6월까지 18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만들어낸 학사구조개편위원회는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가졌다. 2017년 7월에는 「2020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초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학사구조개편(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으며, 동년 12월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구성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듭 거치면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해 내었다. 2018년 2월 12일 「2020학년도 대학 교육편제 조정안」이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됨으로써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은 확정되었다.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은 22개 단과대학 92개 학문단위를 18개 단과대학 72개 학문단위로 조정하는 한편, 단과대학별 광역모집을 시행하고

17) 여기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여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화 계획을 반영한 학사구조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감도 작용하였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폐기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 육성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18) 「단국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방안」(교무위원회 회의자료, 2017.6.21.), 13~33쪽.

Liberal Arts College를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sup>19)</sup> 위원회는 LAC와 관련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순수과학 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하며, 많은 양의 독서와 작문, 토론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학문적 토대를 완성하도록 한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뉴욕대학교와 일본 동경대학교, 싱가포르 Yale-NUS, 홍콩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등의 사례도 검토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림 5] 「2020학년도 신학사구조개편안」(최종안)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은 단국대학교의 Liberal Arts College 도입 및 운영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 1차적 의의가 있다. 또한 Lib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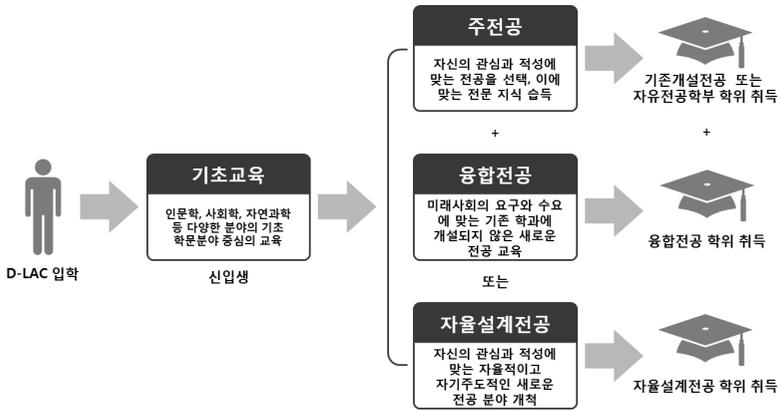
19) 「단국대학교 교육편제, 법인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변경 승인 통보」 공문(총무팀-583, 2018.02.12) 및 붙임 1.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모집단위 편제 조정 내용」.

Education의 범주를 인문학 중심에서 자연과학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을 명시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였다. 한편 LAC 소속 학생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은 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Liberal Education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앞서 이루어진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서의 학부대학(CLS 혹은 LAC) 운영 방안과 차이를 보였다. LAC 소속 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 정원 문제를 가지고 학내 여러 학사조직과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거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기초학문분야 학문단위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그러나 Liberal Education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그램 구성, 운영 조직 및 지원 방안,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겼다.

#### 4. LAC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2018)

2018년 2월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단국대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교양교육대학을 Liberal Arts College로 전환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LAC 출범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으나, 학사구조개편안 마련 및 구성원 설명회와 대학기관인증평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준비로 인해 대학에서는 LAC 준비에 학내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교양교육대학이 그 짐을 지겠다고 나섰다.

교양교육대학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간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타 대학 운영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 그리고 LAC 운영에 대한 구성원 요구 분석을 토대로, D-LAC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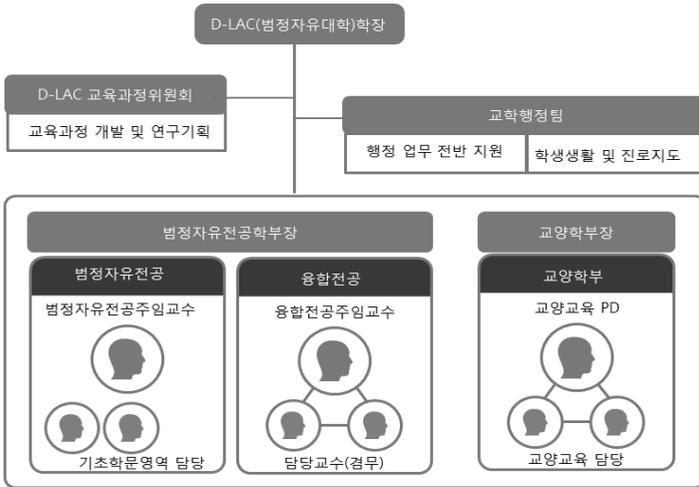
[그림 6] D-LAC 운영 개요

이 연구는 대학이 특화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원활한 구조 개혁을 도모하기 위하여 D-LAC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D-LAC의 기능을 첫째, 전공 탐색을 위한 자유전공학부로서의 기능, 둘째, 심도 깊은 기초학문 탐색의 기회 제공 기능, 셋째, 단국대학교만의 특화된 융합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 기능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sup>20)</sup>

이 연구는 D-LAC에 별도의 모집 정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D-LAC의 모집 정원 확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D-LAC 참여 대학 전체의 정원을 광역 모집하여 1학년 때 기초교육을 받도록 한 뒤 상급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

20) 전은화 외,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8, 83쪽. 여기에서 제시한 D-LAC의 목적과 기능은 Liberal Arts College 또는 Liberal Education의 본질적 성격이나 지향에 충실한 것이기보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적 성향이 강하다. 정책연구로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의 현실과 여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지만, D-LAC 도입 목적과 기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는 D-LAC 참여 대학의 정원 중 일부를 자유전공학부에 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자유전공학부 정원 배정에 따른 반발을 고려하면, 첫 번째 방안이 두 번째 방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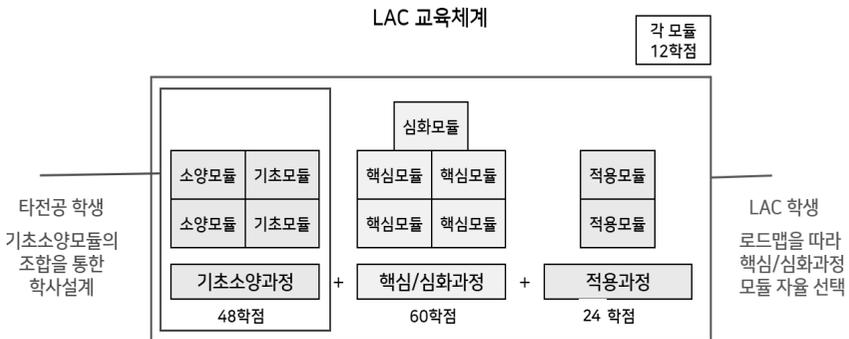
[그림 7] D-LAC 조직도(안)

D-LAC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학장의 총괄 아래 자유전공학부와 교양학부를 두고, 운영 조직으로 교학행정팀과 D-LAC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전공학부는 법정자유전공과 융합전공을 관할하고 교양학부는 기존의 교양교육을 주관하며, 교학행정팀은 행정 업무와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D-LAC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안이었다.<sup>22)</sup>

LAC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모듈별 교육체계를

- 21) 전은화 외,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8, 85~89쪽.
- 22) 보고서에서는 독립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장에게 단과대학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은화 외,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8, 89~90쪽.

제안하였다. 전체 교육과정을 소양, 기초, 핵심, 심화, 적용 5개 모듈별로 체계화하고, 각각의 모듈을 조합, 연계하여 기초소양과정과 핵심/심화과정, 적용과정을 각각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 가운데 기초소양과정(소양모듈, 기초모듈)이 교양기초교육에 해당한다면, 핵심/심화과정(핵심모듈, 심화모듈)과 적용과정(적용모듈)은 전공교육에 해당한다. 전체 졸업요구학점 132학점 가운데 교양기초교육이 48학점(36.36%)을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 교과목을 기초소양과정에서 24학점(소양모듈 2개) 이수하도록 설계하였다.<sup>23)</sup>



[그림 8] 모듈별 D-LAC 교육과정 구성 예시(안)

이밖에도 이 연구는 범정자유전공과 융합전공, 자율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하였으며, 블록 수업과 집중이수제, 교원 확보 등과 같은 D-LAC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와 방안을 제시하였다.<sup>24)</sup>

23) 자유전공학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듈별 교육체계를 제시한 것은 새로운 착안이었으며, 심도 깊은 기초학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상향한 것은 바람직하였다. 다만 소양, 기초, 핵심, 심화, 적용 등 5개 모듈의 개념 및 성격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의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개념과 다르고, 중핵교육과정 또는 core curriculum의 개념과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6~8쪽 참조.

교양교육대학의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는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LAC 관련 연구였을 뿐 아니라 D-LAC의 조직과 교육과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Liberal Arts College 운영을 위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D-LAC 운영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LAC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20학년도 학사구조개편과 동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는 못하였다.

## 5. LAC 안착을 위한 연대 : 「2018 미래교육포럼」과 「D-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2019)

단국대학교는 이처럼 거듭된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에 따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LAC 운영 및 Liberal Education 프로그램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단국대학교에서는 LAC와 Liberal Education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미래교육혁신원의 주관 아래 3차례에 걸친 「2018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Liberal Education, 기초학문의 미래와 대학 교육의 방향”을 기획주제로 한 「2018 미래교육포럼」은 ‘대학 교육의 미래와 인문학’, ‘대학 교육의 미래와 자연과학’, ‘한국형 LAC와 Liberal Education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LAC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초학문분야 단과대학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1차 포럼은 「대학 교육의 미래와 인문학」을 주제로 2018년 5월 11일(금) 죽전캠퍼스에서 열렸다.<sup>24)</sup> 조동일 교수(서울대)와 김기봉 교수(경기대), 손동현 교수(대전대)가 발표를 맡았다. 조동일 교수는 사람이 지닌 가

24) 전은화 외,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8, 96~109쪽.

25) 미래교육혁신원, 『2018-1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대학 교육의 미래와 인문학』,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5.11.

치와 능력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전인 교육'과 학문이란 무엇이며,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학문론 교육'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일반교육'을 내실화해야 대학교육이 바뀔 수 있고 혁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기봉 교수는 현재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인문학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고민하면서 빅히스토리와 교양인문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손동현 교수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일반적 보편 지성교육'인 교양교육이 '특수한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을 망라한 자유학예대학(Liberal Arts College)을 설치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보편 지성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이 특정 전공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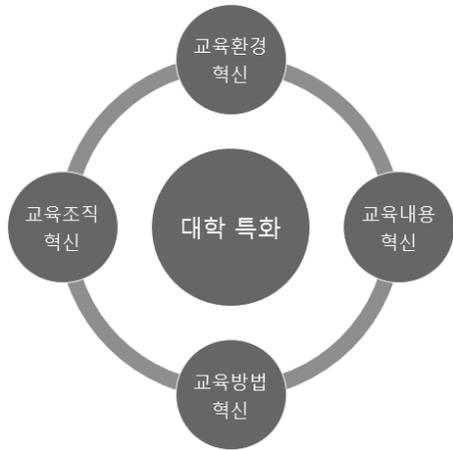
5월 18일(금)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제2차 포럼은 「대학 교육의 미래와 자연과학」을 주제로 하여 민경찬 교수(연세대)와 김승환 교수(포항공대), 김홍석 교수(경북대)가 발표를 맡았다.<sup>26)</sup> 민경찬 교수는 교육의 본질은 '한 학생'의 변화에 있다고 하면서 교육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논쟁이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학생 성공을 위하여 대학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승환 교수는 과학기술과 혁신의 시대에는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Maker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홍석 교수는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대학의 요구와 신입생의 학력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지적하면서, 대학에서의 화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개념과 이론들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다양한 추론과정, 과학적 방법 및 사회적 맥락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과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강의와 실험,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조화

26) 미래교육혁신원, 『2018-2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대학 교육의 미래와 자연과학』,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5.18.

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 교육의 현실을 성찰하게 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과 대학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표들이었다.

2018-3차 미래교육포럼은 「한국형 LAC와 Liberal Education의 방향」을 주제로 8월 24일(금) 죽전캠퍼스에서 열렸다.<sup>27)</sup> 「한국형 LAC 성공을 위한 기초학문의 역할」에 대한 홍성기 교수(아주대)의 발표와 함께 최병문 교수(대전대), 이규환 교수(대구대), 백승수 교수(가천대), 윤승준 교수(단국대)가 각 대학의 LAC 운영 현황과 준비 과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제3차 미래교육포럼은 대학 교육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Liberal Arts College, Liberal Education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격렬한 토론과 날선 비판 속에 진행된 「2018 미래교육포럼」은 LAC와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Liberal Education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안, 즉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단국대학교는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 특화를 목적으로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는 그 가운데 하나였다.<sup>28)</sup> 이 연구는 현행 단국대학교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



[그림 9]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 특화

27) 미래교육혁신원, 『2018-3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한국형 LAC와 Liberal Education의 방향』,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8.24.

28) 윤승준 외, 「D-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 단국대학교, 2019.

내외 주요 대학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진은 단국대학교의 교양교육 현황을 운영 조직과 체제, 즉 교양교육 전담기관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단국대학교는 교양교육 전담기관 및 부속 교육기구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sup>29)</sup> 부속 교육기구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인력, 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예컨대 교양교육에 관한 정책연구나 기본계획 수립을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획 실이나 교무처에서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정 목적 사업에 필요하다면 교양 교과목은 당연히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편만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공통교양’, ‘영역별교양’, ‘대학기초교양’, ‘일반교양’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양교육과정은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가운데 29.2%에 해당하는 3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학기초교양’과 ‘일반교양’이 문제로 지적되었다.<sup>30)</sup> 교양교육과정 38학점 가운데 6학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기초교양’은 전반적으로 전공기초교육에 해당하며 그 운영 권한마저 각 단과대학에서 가지고 있어 교양교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단과대학에 따라 ‘대학기초교양’ 대신 개설하고 있는 ‘공학소양’이나 ‘법학소양’, ‘SW융합소양’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일반교양’에 개설되는 특정 시험 대비를 위한 교과목이나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과목들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취업이나 창업

29) 단국대학교는 교양교육 전담기관으로 교양교육대학을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18일 현재 양 캠퍼스의 교양교육대학에는 69명의 전임교원(정년트랙 39명, 비정년트랙 30명)과 145명의 비전임교원(초빙/겸임교원 45명, 강사 100명), 15명의 교직원(정규직 6명, 비정규직 9명)이 재직하고 있다. 또한 부속 교육기구로 글쓰기센터와 BSM센터, 인성교육센터, 교양영어실, 진로교과실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30) 박정하·이보경·이재성, 「2017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단국대학교 진단결과 보고서」(CS-2017-1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6.16., 6~8쪽.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양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서도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연구진은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대학의 Liberal Education 운영 현황을 검토 분석하였다.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국내 6개 대학과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시카고대학교, 윌리엄스대학, 싱가포르 Yale-NUS, 일본의 도쿄대학교 등 해외 13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Liberal Education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수리 추론’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수리 추론’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나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기초교양’은 전공교육이 교양교육 학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양교육과정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대학기초교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교양 교과목이 아니라 특정 단과대학 특정 학과 학생들을 위해 개설하는 전공기초 교과목일 뿐 아니라 교과목 개설이나 교강사 위촉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양교육 전담기관인 교양교육대학이나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관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교양교육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양 교과목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공학소양’이나 ‘법학소양’, ‘POSE’ 교과목들 역시 ‘대학기초교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셋째, ‘일반교양’에 개설되는 특정 시험 대비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과목,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교과목들은 별도의 영역으로 개설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을 토대로 연구진은 LAC의 운영 목적과 기본 철학, 교육

목표와 추진 전략, 조직 운영 방안 및 교육과정 편성, 개설 교과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 합동 실처장회의와 교무 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단과대학별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 III.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D-LAC)의 교육목표와 교양교육과정

2020학년도 3월에 출범하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D-LAC)은 이와 같은 여정을 거쳐 이르게 된 중간 기착지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III장에서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D-LAC)의 운영 목적과 교육목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의 실제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 1. 자유교양대학(D-LAC)의 운영 목적과 교육목표

단국대학교가 자유교양대학(D-LAC)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폭넓은 교육, 깊이 있는 교육, 견실한 교육을 통하여 D<sup>3</sup>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양기초 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듯이, 산업 수요와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의 전공 중심 교육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적 연결지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sup>31)</sup> 그런 점에서 기초학문분

31) 손동현, 『대학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33~46쪽.

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 깊이 있는 교육, 견실한 교육을 제공할 Liberal Education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공교육 중심의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극복하고 교양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플랫폼 효과(platform effect)’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sup>32)</sup> 이를 위하여 단국대학교는 배분이수(distributive requirements)와 이중설강(double listing) 제도를 도입하고, 글쓰기, 외국어, 수리 추론 등 기초교육에 대한 견실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D<sup>3</sup>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교양대학(D-LAC) 운영의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양교육과정 운영상의 오래된 관행<sup>33)</sup>을 혁신하고 교양교육과정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학부교육의 실질적 혁신을 꾀하기 위함이다.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편견과 오해, 관행을 바로잡고, 수도권 대규모 대학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학과를 고루 갖추고 있는 장점을 살려 Liberal Education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학부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단국대학교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교양대학(D-LAC)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양기초교육의 내용과 방

32) 디지털 기업들이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여 규모수익의 증대를 누리는 현상을 클라우드 슈밥은 ‘플랫폼 효과’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한편 홍성기 교수는 교양교육을 전공교육의 플랫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클라우드 슈밥, 송경진 옮김,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34쪽.; 홍성기, 「개방형 플랫폼 시대의 교양교육」, 『두루내』 29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2~7쪽.

33) 교양교육과정 운영상의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터인데, 이는 비단 단국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문 직업교육과는 상대되는 ‘일반적 보편 지성 교육’이 교양교육의 본령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이나 실용교육을 위한 교과목(취·창업 관련 교과목이나 특정 시험 대비 교과목 등)들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해 온 관행, 교원의 책임이수 충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양 교과목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면 교양교육과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근시안적 태도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식은 실상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함과 아울러 수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유교양대학은 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고 수월성을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국대학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겨난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sup>34)</sup>라는 말을 자유교양대학(D-LAC)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근본을 충실히 하는 데 힘쓴다. 인류가 축적하여 온 최고의 지적 자산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넓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참다운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참다운 가치의 추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교육외적 요인에 휘둘려 온 학부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국대학교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정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세계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으며, ‘성숙한 인격체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판단력과 도덕성, 지적 소양과 균형 잡힌 안목의 함양’과 ‘어떤 분야의 전공이나 직업에든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기초 확립’을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은 실천 목표는 ‘전인적 인간 양성’과 ‘학문의 토대 형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단국대학교

34) 『논어』 「학이」 편.

35) cf. 송재용 외, 「교양교육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7, 73쪽.; 교양교육대학, 「교양교육대학 발전계획(안)」,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9, 2쪽.

자유교양대학(D-LAC)은 이같은 교육목표의 실현을 추구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인적 인간 양성’이라는 자유교양대학의 교육목표는 이같은 신념과 철학, 판단 기준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Liberal Education은 성숙한 인격체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판단력과 도덕성은 물론 지적 소양과 균형 잡힌 안목을 갖춘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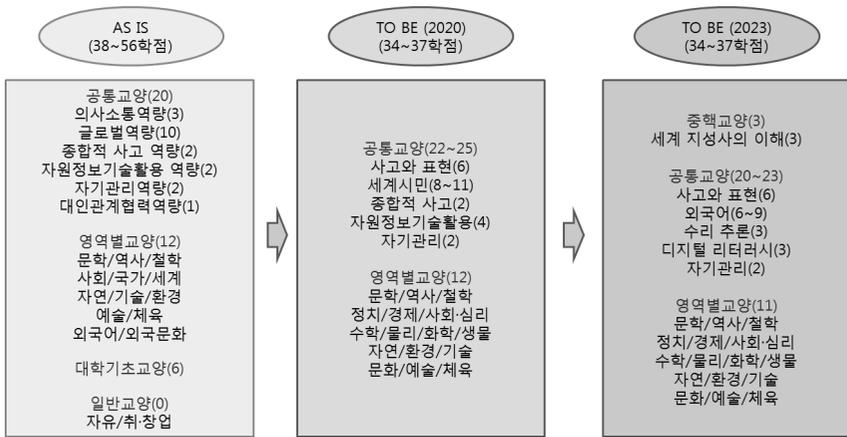
또한 단국대학교의 자유교양대학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 자료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깊이 있는 해석 등 어느 분야의 학문이나 직업에든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21세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두루 적용하게 될 기본적인 문제 능력(문해력, 수리능력, 과학적 문해력, ICT 문해력 등), 복잡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성격과 태도(호기심, 자기주도성, 인내력, 적응력, 리더십 등) 등으로 요약되는데,<sup>36)</sup> 자유교양대학은 Liberal Education을 통하여 21세기 학생들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업의 기초를 다지고 삶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 2.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2019년 4월 16일 최종 확정된 단국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은 ‘중핵교양’, ‘공통교양’, ‘영역별교양’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없었던 ‘중핵교양’

36) World Economic Forum, 21st-Century Skills, *New Vision for Education*, 2016.

을 신설하고,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학기초교양’과 ‘일반교양’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통교양’의 하위 영역으로 ‘수리추론’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추가하였으며, ‘영역별교양’의 하위영역을 재편하여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교양 이수학점이 38학점에서 34~37학점으로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대학기초교양’과 ‘일반교양’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양교육의 강화를 도모하였다.<sup>37)</sup>



[그림 10] 단국대학교 교양교육과정 단계별 개편안

이와 같은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2년까지 수행하는 SW 중심대학 사업을 고려하여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은 2023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22학년도까지는 과도기적 형태의 절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37) ‘대학기초교양’은 전공교육과정의 전공소양 영역을 신설하여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교양’에 개설되었던 교과목들은 선택교육과정(‘응비교육과정’)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와 같은 정비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사후 모니터링 진단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정받았다. 박정하·손승남, 「2019년도 대학 교양교육 사후 모니터링 단국대학교 진단 결과 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2~3쪽.

다. 우선 2020학년도에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대학기초교양’과 ‘일반교양’을 교양교육과정에서 정리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성격을 1차적으로 명확히 하고, 2023학년도 개편을 통하여 SW 중심대학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흐트러졌던 교육과정의 형평성과 체계성을 되찾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핵교양’을 신설하고 ‘공통교양’의 각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유교양대학(D-LAC)을 설립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신설되는 ‘중핵교양’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해 온 지적·문화적 유산을 전수하고,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38) 대학의 책무와 사명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영역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필수로 교육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교과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표 1〉 교양교육과정 개편안(2020학년도 기준)

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기준
공통 교양	사고와표현	대학글쓰기	3	22학점
		명저읽기	3	
	세계시민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2	
		대학영어 1	3	
		대학영어 2	3	
		제2외국어	0~3	

38) 다치바나 다카시는 대학을 일러 “인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지적 자산을 공동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지닌 지적 공동체”라고 하면서, 인류 사회의 유산 상속인을 육성하고 그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곧 대학의 사명이라고 한 바 있다. 다치바나 다카시, 이정환 옮김,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데』, 청어람미디어, 2002, 235~236쪽.

영역		교과목	학점	이수기준
	종합적사고	창의적사고와코딩	2	
	자원·정보·기술활용	대학기초SW입문	2	
		전공별SW활용	2	
	자기관리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	
영역별교양	문학/역사/철학	30개 교과목	3	5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씩 12학점 이상 이수
	정치/경제/사회·심리	30개 교과목	3	
	수학/물리/화학/생물	30개 교과목	3	
	자연/환경/기술	30개 교과목	3	
	문화/예술/체육	30개 교과목	3	
계				34학점

〈표 2〉 교양교육과정 개편안(2023학년도 기준)

영역		교과목(가칭)	학점	이수방식
중핵교양		세계지성사의이해	3	필수
공통교양	사고와표현	대학글쓰기	3	
		명저읽기	3	
	외국어	대학영어 1	6~9	필수 ※ 외국어대학은 제2외국어 필수
		대학영어 2		
		제2외국어		
	수리추론	논리학, 탐색적자료분석, 데이터분석과문제해결	3	선택적 필수
디지털리터러시	computational thinking, 초연결사회와융합기술	3		
자기관리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	필수	

영역		교과목(가칭)	학점	이수방식
영역 별 교양	문학/역사/철학	30개 교과목	3	5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 이상에서 1과목 이상씩 이수
	정치/경제/사회·심리	30개 교과목	3	
	수학/물리/화학/생물	30개 교과목	3	
	자연/환경/기술	30개 교과목	3	
	문화/예술/체육	30개 교과목	2~3	
계			34~37	외국어대학 37학점

‘공통교양’은 대학에서의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다. 특정 학문이나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종합적 판단력, 의사소통능력(한국어, 외국어) 및 타 문화 이해 능력, 자원 및 정보 처리능력,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 등의 함양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2020학년도부터 ‘명저 읽기’ 교과목을 신설하고, 2023학년도부터는 ‘수리 추론’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영역별교양’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교육을 폭넓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시행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Liberal Education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영역별교양’은 자기 전공분야를 제외한 다른 영역을 고르게 이수하도록 하는 배분이수(distributed requirements) 방식을 적용하고, 기초학문분야 전공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영역별교양의 교과목으로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설강(double listing) 제도를 도입한다. ‘영역별교양’의 하위영역은 ‘문학/역사/철학’, ‘정치/경제/사회·심리’, ‘수학/물리/화학/생물’, ‘자연/환경/기술’, ‘문화/예술/체육’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3〉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의 각 영역별 성격

구분	성격
중핵교양	• 인류의 지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와 그 현대적 의의 탐구
공통교양	• 글쓰기, 외국어, 수리 추론 등 기초적 학구능력의 함양
영역별 교양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보편적 지성교육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학문횡단능력의 함양

이와 같은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자유교양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Liberal Education은 결국 인간적 가치를 탐구하고 그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것이 공동체 교육이고 시민 교육이며, 인성 교육이고, 보편적 지성 교육이며, 자기완성과 자기초월을 추구하는 Liberal Education이다.

### 3. 자유교양대학의 향후 과제

단국대학교는 2020년 3월 기존의 교양교육대학을 자유교양대학(D-LAC)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을 시행한다. 짧지 않은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교양교육대학을 자유교양대학(D-LAC)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유교양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공통적으로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캠퍼스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교양대학은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을 비롯한 기초학문분야 단과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기초학문분야의 단과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학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설강(double listing) 및 교원의 겸직(dual appointment)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 교양영어실, 진로교과실 등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대 또한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명저읽기」나 「세계 지성사의 이해」와 같은 신설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하며, 이 교과목들을 담당할 교원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행히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전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수리추론’ 영역과 ‘디지털리터러시’ 영역의 교과목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추론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이 그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Liberal Education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폭넓게 학습하고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국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교양의 이수학점을 현재 12학점에서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sup>39)</sup> 이와 관련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3학점의 인문사회 교양 교과목을 8개씩이나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sup>40)</sup>

39) 박정하·손승남, 「2019년도 대학 교양교육 사후 모니터링 단국대학교 진단 결과 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3쪽.

단국대학교는 죽전캠퍼스의 IT, CT 특성화, 천안캠퍼스의 BT, 외국어 특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공 학과를 비롯한 학내 인프라를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 정책은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산출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 학과와 교원 및 시설의 편중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을 위한 인프라 부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교양교육은 특정 캠퍼스나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자유교양대학의 Liberal Education 프로그램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폭 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를 담당할 교원 및 시설의 확충이 양 캠퍼스 공히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기초학문분야의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은 영역별교양 이수학점의 확대와 함께 자유교양대학이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교육방법론 개발, 교육성과의 진단 및 환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 IV. 결 론

본고는 안팎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하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D-LAC)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한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의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6년 「단국대학교 미래교육 혁신안」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단국대학교의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구상은

40) 이관행, 「AI 시대의 대학교육-기초교양교육 강화 사례」, 『대학교육』 207호, 한국대학교육협회, 2020, 42~49쪽.

2018년 「2020 신학사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공식화되었고, 교양교육 대학 및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의 정책연구와 「2018 미래교육포럼」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폭넓은 교육, 깊이 있는 교육, 견실한 교육을 통하여 D<sup>3</sup>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단국대학교의 자유교양대학(D-LAC)은 기존 교양교육과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함과 아울러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는 중핵교양 교과목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한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교육 편제 및 교육과정과 신규 교과목은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이 주목하고 있다. Liberal Education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것이나, 그동안 축적해 온 내적 역량과 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1.28.
-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변화의 시대, 교양교육의 재발견』(2018 국제 교양교육 포럼), 롯데호텔 서울, 2018.11.21.~22.
-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2019 국제 교양교육 포럼), 서강대학교 장하서관, 2019.10.25.~26.
- 다치바나 다카시, 이정환 옮김,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청어람미디어, 2002.
- 교육기획단,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 기획안」, 단국대학교 교육기획단, 2016.
- 미래교육혁신원, 『2018-1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대학 교육의 미래와 인문학』,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5.11.
- 미래교육혁신원, 『2018-2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대학 교육의 미래와 자연과학』,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5.18.
- 미래교육혁신원, 『2018-3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한국형 LAC와 Liberal Education의 방향』,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8.24.
- 박병철,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형성과 발전」, 『교양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박정하 · 손승남, 「2019년도 대학 교양교육 사후 모니터링 단국대학교 진단 결과 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 박정하 · 이보경 · 이재성, 「2017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단국대학교 진단결과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1·2』, 학지사, 2015·2016.
- 손동현, 『대학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 \_\_\_\_\_, 「자유학예교육, 반 시대적 이념인가?」, 『2018-1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대학교육의 미래와 인문학』,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
- 송재용 외, 「단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17.
-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윤승준, 「단국대학교의 D-LAC 추진 배경과 방향」, 『2018-3차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포럼: 한국형 Liberal Arts College와 Liberal Education의 방향』,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2018.
- 윤승준 외, 「D-LAC 설립 및 Liberal Education 운영 계획안」, 단국대학교, 2019.
- 윤우섭·홍석민·홍성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2019.
- 이관행, 「AI 시대의 대학교육-기초교양교육 강화 사례-」, 『대학교육』 207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
- 이창수·송백훈·전종구, 「자유교육의 개념에 대한 고찰-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주는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권 6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 임선애 외, 「학부교육 선도대학 교양교육 성과진단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 임철일·송해덕·김지현,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 전은화 외, 「단국대학교 LAC 운영 방안 수립 연구」, 단국대학교 교양교육

- 대학, 2018.
- 조영하, 「21세기 대학의 자유교육, 그 정체성에 관한 고찰-미국고등교육사회의 관련 논쟁과 담론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5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
- 최병문 외,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 파리드 자카리아, 강주현 옮김,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2015.
- 홍성기, 「개방형 플랫폼 시대의 교양교육」, 『두루내』 29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World Economic Forum, 21st-Century Skills, *New Vision for Education*, 2016.

<https://www.aacu.org/leap/what-is-a-liberal-education>

## Abstract

## Liberal Education, toward the Ancient Future: Focused on the Challenge of Dankook University

Yoon, Seung-Joon(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that Dankook University has prepared to implement Liberal Arts College, the goal of Liberal Education that Dankook University pursues, and how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educational goals, and what tasks were to be needed in its implementation. Dankook University has transformed an existing th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into a liberal arts college (D-LAC) in order to cultivate students with a wide range of knowledge, insights and in-depth knowledge in the field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The education curriculum was reorganized into a three-element system of liberal arts, majors, and choices (Ungbi), aiming to enhance the liberal arts curriculu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as decided in stages in consideration of the university conditions. Dankook University's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Liberal Education consists of core curriculum, common course, and distributed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tim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core curriculum, the 2020 school year consists only of common course and distributed requirements. And in 2023, a complete liberal arts curriculum including core curriculum will be operated.

In order for Dankook University's liberal arts college to take root and develop stably, cooper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development of new courses such as “Understanding of the World Intellectual History”, expansion of credits for liberal arts in each area, securing of full-time faculty in basic academic fields, and increasing educational conditions remain a challenge.

---

[Key Words] liber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educational goal, curriculum reorganization, core curriculum, common course, distributed requirements

접 수 일 : 2020년 02월 10일

심사완료 : 2020년 02월 28일

게재결정 : 2020년 03월 09일

